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6. 2. 13.(금) 07:00 ~ 2026. 2. 18.(수) 22:00
- 상담건수: 1,795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편성 호평(7명)

-프로그램명 : 「2026 태안 설날장사 씨름대회」 ‘태백장사’

-방송일시 : 2026. 2. 15.(일) 1TV (14:20-16:10)

설날에 씨름 경기를 시청하는 것을 좋아한다. 긴장감 있고 재미있다. KBS에서 씨름대회를 중계해 주어 감사하다.

○ 결방 제언(9명)

-프로그램명 : 일일드라마 「친밀한 리플리」

-방송일시 : 2026. 2. 16.(월) 2TV (19:50-20:30)

해당 드라마 방송 시간만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속상하다.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6건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1,795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¹⁾	계
1,067	49	-	-	679	1,795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890	589	27	-	1	288	1,795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380	1,415	-	1,795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1,451	2	86	256	1,795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편 성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2026 태안 설날장사 씨름대회」 - 편성 호평 ○ 「설 특선 다크 북녘산하 최신영상」 - 편성 제언 ○ 일일드라마 「친밀한 리플리」 - 결방 제언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한국인의 밥상」 - 방송 호평 ○ 「사이언스 위」 - 방송 호평 ○ 「설 특집 글로벌 한인기행 김영철이 간다」 - 방송 호평 <p>【라디오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7시 뉴스」 - 진행자 발언 제언 ○ 「출발 FM과 함께」 - 선곡 호평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설 기획 6시 내고향」 - ‘굴비’ 연락처 문의 113건 ○ 「전국노래자랑」 - ‘방송 정보’ 문의 44건 ○ 「설 기획 아침마당」 - ‘돌발퀴즈 전화’ 문의 43건 ○ 「말자쇼」 - ‘방청’ 문의 29건 ○ 「2TV 생생정보」 - ‘한식 보리밥 뷔페’ 연락처 문의 29건 <p>【기 술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주과수」 문의 2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48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22건 ○ 「주차」 문의 5건 ○ 「수신료」 문의 4건 ○ 「견학」 문의 3건 외 4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256건

1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	세부내용
[편 성]	
편성 호평	<p>○ 「2026 태안 설날장사 씨름대회」 ‘태백장사’ (7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. 2. 15.(일) 1TV (14:20-16:10) - 설날에 씨름 경기를 시청하는 것을 좋아한다. 긴장감 있고 재미있다. KBS에서 씨름대회를 중계해 주어 감사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편성 제언	<p>○ 「설 특선 다큐 북녘산하 최신영상」 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. 2. 17.(화) 1TV (13:05-13:55) - 명절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KBS 채널을 시청하고 있다. 그런데 왜 북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. 우리가 설날에 왜 북한 영상을 봐야 하는지, 공영방송이 왜 이런 방송을 편성한 것인지 기획의도가 궁금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결방 제언	<p>○ 일일드라마 「친밀한 리플리」 (9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. 2. 16.(월) 2TV (19:50-20:30) - 해당 드라마 방송 시간만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속상하다.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의견	세부내용
[시사·교양]	
방송 호평	<p>○ 「한국인의 밥상」 (4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. 2. 12.(목) 1TV (19:40-20:30) - 해당 방송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음식들을 알게 되는 점이 좋다. 지역별 특산물이 다뤄지는 점도 좋다.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. KBS에 너무나 감사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방송 호평	<p>○ 「사이언스 워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. 2. 14.(토) 1TV (20:10-21:00) (재) -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니 학창 시절에 공부하던 때가 떠올랐다. 전문가들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니까 몰입이 잘 됐다.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.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방송 호평	<p>○ 「설 특집 글로벌 한인기행 김영철이 간다」 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. 2. 17.(화) 1TV (21:30-22:20) - 출연자들의 성공사례를 보며 삶의 의욕이 생기고 귀감이 됐다. 타국에서 성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, 이런 성공사례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든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